



KBL이 '12분 쿼터제'의 시행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KBL은 각계 전문가들로 TF팀을 꾸려 12분 쿼터제 도입 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뒤 차기 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현장에선 12분 쿼터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다. 스포츠동아DB

KBL '12분 쿼터제' 반대여론에 밀렸다

KBL 이사회서 TF팀 구성·검토 결론

한선교 총재, 여론 질타에 한 발 물러서 TF팀 통해 장단점 분석·각계 여론 수렴 차기 이사회서 결론...유보·철회 가능성

KBL(한국농구연맹)이 2014~2015시즌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12분 쿼터제'의 시행에 대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그 결과에 따라 12분 쿼터제 시행이 유보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생겼다. 독보적 군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12분 쿼터제를 강행하려던 KBL 한선교 총재가 현장의 거센 반대에 귀를 기울여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12분 쿼터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사회를 설득해 다음 시즌부터 쿼터별 경기시간

을 2분씩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감독과 선수 대부분이 질적인 하락을 우려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어 각 구단 사무국장들로 구성된 실무회의도 지난주 회의에서 '12분 쿼터제 도입의 유보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경한 입장이었던 한 총재는 현장의 반대와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TF팀을 통한 장단점 분석과 여론수렴 후 도입 여부 최종 결정"으로 선회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A구단 단장은 "12분 쿼터제 도입 철회는 아니지만,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반대 의사가 나오면 (총재가) 받아들일 여지가 생겼다. 분위기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12분 쿼터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사회를 설득해 다음 시즌부터 쿼터별 경기시간

을 2분씩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감독과 선수 대부분이 질적인 하락을 우려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어 각 구단 사무국장들로 구성된 실무회의도 지난주 회의에서 '12분 쿼터제 도입의 유보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경한 입장이었던 한 총재는 현장의 반대와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TF팀을 통한 장단점 분석과 여론수렴 후 도입 여부 최종 결정"으로 선회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A구단 단장은 "12분 쿼터제 도입 철회는 아니지만,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반대 의사가 나오면 (총재가) 받아들일 여지가 생겼다. 분위기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결

론을 내렸다. 이사회에 참석한 A구단 단장은 "12분 쿼터제 도입 철회는 아니지만,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반대 의사가 나오면 (총재가) 받아들일 여지가 생겼다. 분위기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결

과를 반겼다. 공은 TF팀으로 넘어갔다. KBL이 TF팀을 어떤 멤버로 구성하느냐가 중요해졌다. 객관적 시각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TF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KBL이나 한 총재의 의견대로 TF팀이 끌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TF팀의 검토 결과가 제도 도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임시총회에서선 오리온스 농구단 강원기 대표이사, 모비스 정병철 사장으로 각각 구단주를 변경했다. 모비스 정호인 단장을 KBL 이사로 보선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월드컵 조 추첨식 나홀로 불참...한국농구 현주소

최강 미국도 예비명단 발표 등 준비 착수 16년 만에 본선 진출 한국은 감독 선임뿐

농구는 축구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포츠다. 200여개의 국가에서 프로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남자프로농구(KBL)은 전 세계 프로리그 중 체계적이고 신용도가 높은 리그임을 자부하고 있지만,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 남자대표팀은 지난해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3위에 오르며 1998년 이후 무려 16년 만에 농구월드컵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국제농구연맹(FIBA)은 4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농구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을 진행했다. 세계랭킹 31위의 한국은 리투아니아(4위), 호주(9위), 슬로베니아(13위), 앙골라(15위), 멕시코(24위)와 함께 D조에 편성됐다.

이날 조 추첨식은 축구월드컵의 추첨식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됐다. 비록 국내에선 TV 중계가 없었지만, 농구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추첨식을 지켜봤다. 24개국의 국명이 호명될 때마다, 중계 카메라는 해당국의 농구 관계자들을 비쳤다. 그러나 국내 관계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24개국 중 관계자가 추첨식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한국농구연맹(KBL)과 대한농구협회는 국가대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농구외교에 있어선 전혀 관심이 없음을 전 세계에 공표한 셈이다. 중계 측은 김주성(동부)의 사진 한 컷을 방송에 실어 한국을 소개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국마저도 지난달 일찌감치 르브론 제임스(마이애미), 케빈 듀란트(오클라호마시티) 등이 포함된 대표팀 예비명단을 발표하는 등 월드컵 준비에 착수했지만, 한국은 최근 들어서야 유재하(모비스)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발표했다. 16년 만의 월드컵 진출을 반기는 것은 팬들뿐이다. 정작 KBL과 농구협회는 무관심한 듯하다. 매 대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대팀 전력 분석에 대해서도 농구협회 측은 "아직 생각할 일이 아니다"며 큰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stopwook15

KISS, 조직개편안에 뒤숭숭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대한체육회 이관·진천 배치 등 문체부 장관 승인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 변경...원기능 약화 우려

한국체육과학연구원(KISS)이 조직개편안 때문에 뒤숭숭하다. KISS는 1980년 스포츠과학연구소로 출범한 이후 34년간 엘리트 경기력 향상 연구와 국가대표 현장지원, 체육지도자 양성이라는 3대 핵심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박태환(수영)과 장미란(역도)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연결됐다. KISS는 체육정책 연구 기능 등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KISS 개편안을 요약하면, KISS의 스포츠과학 기능 전반을 대한체육회로 이관시켜 진천선수촌으로 보내고, 스포츠산업진흥 기능을 KISS에 붙인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KISS 내에 스포츠산업진흥센터를 신설하고, KISS의 명칭을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체육계 관계자는 4일 "이미 1월 29일 KISS 조직개편안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KISS는 "개편안으로 인해 KISS의 연구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KISS 산하 스포츠과학연구실을 현장지원 위주의 스포츠과학실로 개편하고, 진천선수촌에 주기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KISS 관계자는 "진천선수촌에는 연구와 지도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일본스포츠과학연구소의 사례에서 보듯 연구와 지도자 교육이 없는 현장지원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진천 지원 문제는 분원 설치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KISS의 '연구-지원-교육' 삼각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다.

KISS는 "KISS가 한시적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별도의 스포츠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 영역에선 부문별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별도의 진흥원이 존재한다.

한편 KISS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원도 시작됐다. 문화연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KISS의 명칭과 주요 기능은 독립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lupman@donga.com 트위터@selupman11

남자핸드볼팀 주장 이재우 인천서 명예롭게 은퇴할까

"아시아게임 무조건 금"…후배 병역혜택 걱정도



남자핸드볼대표팀 주장 이재우(35·두산·사진)는 바레인에서 열린고 있는 제16회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를 치르며 많은 생각을 잠겨왔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1998년 방콕아시아게임부터 달아온 태극마크를 반납할 계획이었으나, 대표팀이 4강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한국시간) 오만과의 5~8위 결정전을 앞두고 이재우는 "9월 아시아게임까지 대표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후배들을 위해 병역혜택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본인이 대표팀에 남는다면 후배 가운데 병역혜택을 못 받을 선수가 나올까봐 걱정이다. 물론 무조건 금예탈을 따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는 "대표팀이 나를 필요로 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기에 인천아시아게임이 더욱 절실해졌다. 한국남자핸드볼의 명예회복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재우는 "중동 국가들이 성장한 데 비해 우리는 준비가 부족했다. 현재 남자핸드볼은 위기가 맞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면 아시아게임에서 반전시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카타르가 용병들을 국가대표로 데려와 강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을 수 없는 벽은 아니라고 믿는다. 윤경신, 백원철의 대표팀 은퇴 공백도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우는 "더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국가대표 유니폼의 무게를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5~8위전으로 밀렸어도 그가 "분위기를 차치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며 주장으로서 후배들을 독려하는 이유다.

마나매(바레인)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rs121

짧은 퍼팅 팬 손목 움직임 줄이고 감지를 펴라



김지현의 골프 레시피 총정리 ②

●짧은 퍼팅 실수, 손목을 잡아라

1~2m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에서 퍼팅 성공률이 낮다면 싱글의 꿈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짧은 거리의 퍼팅을 자주 놓치는 골퍼들의 자세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 그림에 문제가 있다. 특히 스트로크 과정에서 손목이 움직이는 실수를 많이 한다.

그림을 잡는 방식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기술은 퍼팅 시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어떤 자세로 퍼팅하든 손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견고한 그림이다. 이것만 지키면 짧은 거리에서 공이 홀을 벗어하는 허무한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퍼팅 전 크게 심호흡을 하고 몸의 긴장을 풀 상태에서 퍼팅을 시작하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퍼팅을 할 수 있다.

●짧은 퍼팅, 감지를 펴라

퍼팅 때 거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는 손가락이 쥐고 있다. 특히 왼손과 오른손 감지의 위치에 따라 거리 감각에 큰 영향을 준다. 공을 똑바로 굴리기 위해 양 손의 감지를 샤프트와 일직선이 되도록 곧게 편 상태로 그림을 잡는 골퍼들이 많다. 이 그림은 정확성을 높이는 대신 감각을 떨어뜨리는 양면성이 있다. 퍼팅했을 때 공이 홀 앞에 멈춰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잦은 골퍼라면 이런 그림은 피하는 게 좋다.



1 그림의 모양에 따라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짧게 쳐서 퍼팅을 실패하고 있다면 오른손 감지의 모양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짝 펴서 잡는 것보다 살짝 구부려 샤프트를 감싸 잡는 방식이 거리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손의 힘은 너무 강한 것보다 펴터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잡는 게 좋다. 그림을 잡을 때는 양 손의 감지를 11자 모양으로 펴주는 것보다 살짝 구부려 자연스러운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 3 클럽 헤드 가 모래를 확실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페이스를 열어주는 게 벅커샷의 성공확률을 높여준다.



4 감지를 펴서 잡는 것보다 살짝 구부려 샤프트를 감싸 잡는 방식이 거리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손의 힘은 너무 강한 것보다 펴터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잡는 게 좋다. 그림을 잡을 때는 양 손의 감지를 11자 모양으로 펴주는 것보다 살짝 구부려 자연스러운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 6 클럽 헤드 가 모래를 확실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페이스를 열어주는 게 벅커샷의 성공확률을 높여준다.

"감지를 펴서 잡는 것보다 살짝 구부려 샤프트를 감싸 잡는 방식이 거리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손의 힘은 너무 강한 것보다 펴터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잡는 게 좋다. 그림을 잡을 때는 양 손의 감지를 11자 모양으로 펴주는 것보다 살짝 구부려 자연스러운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 6 클럽 헤드 가 모래를 확실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페이스를 열어주는 게 벅커샷의 성공확률을 높여준다."

원손·오른손 감지 위치가 거리감각에 영향 벅커샷 팬 스탠스 고정하고 페이스 열어야

에 맞았을 때의 감각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다. 왼손 감지를 오른손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오른손 감지는 그림을 살짝 감싸듯 부드럽게 잡는 게 거리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벅커에서도 '굿샷' 셋업부터 점검하라

벅커에서 웃으며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기술은 셋업이다. 3가지만 기억하면 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가장 먼저 스탠스다. 양발은 체중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한다. 양발을 지그재그로 움직여 골프화의 밑창 부분이 모래 속에 묻힐 정도까지 고정시킨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윙 중 하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 안정된 스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클럽 페이스다. 페이스 각도를 열어 더 많은 모래를 폭발시키고 공이 모래 위로 떠오를 수 있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스윙 궤도다. 백스윙 때 아웃사이드로 들었다가 인사이드로 진행해 클럽 헤드 가 모래 속으로 파고들지 않고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도움말 | KLPFA 프로골퍼 김지현

정리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na1872

※ 김지현의 골프레시피는 오늘자로 종료됩니다.

촬영 협조 | 해슬리 나인브릿지

전자랜드, 삼성과의 원정경기 91-58 압승

전자랜드가 4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L 국가대표 프로농구'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47-26으로 크게 앞서서 등 시종일관 리드를 지킨 끝에 91-58로 대승을 거뒀다. 전자랜드(23승19패)는 4위 kt에 0.5게임차로 접근한 반면 삼성(15승27패)은 공동 9위로 한 계단 더 떨어졌다.

남자농구 PO 일정 발표...내달 12일부터 6강 PO

2013~2014시즌 남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PO) 일정이 4일 발표됐다. 6강 PO는 3월 12일부터 5전3승제, 4강 PO는 3월 22일부터 5전3승제, 챔피언 결정전은 4월 2일부터 7전4승제로 열린다.